

“부모와 자녀, 한편의 책 속으로”

20여 년 동안 어린이들의 독서·토론·논술교육에 매진해 온 (사)미래다문화발전협회 이사장 겸 시조시인 박성갑 씨가 아들 박멋진별 씨와 함께 쓴 동시조집 '가위 바위 보' (도서출판 고글)를 출간했다.



'가위 바위 보'는 아버지 박성갑 씨가 쓴 50편과 아들 박멋진별 씨가 쓴 47편 등 총 97편의 동시조들로 구성되어 있다. 삽화는 도내 각 유치원과 초·중학생들이 애정 어린 손길로 그려내 특별함을 더한다. 박멋진별 씨는 “이 책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의 오가고 관계가 한층 더

시조시인 박성갑·아들 박멋진별 동시조집 '가위 바위 보' 출간

97편의 동시조들로 구성 도내 학생들이 삽화 그려내

진밀해지길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정성수 시인은 서평에서 “이 동시조집은

마치 꽃바구니를 바라보는 착각에 빠지기도 할 뿐더러 삽화들은 학교가 다른 어린이들이 그린 삽화들로 심심하고 쫓겨해서 볼수록 정감이 가고 사랑스럽다”고 밝히면서 “박성갑·박멋진별 부자 시간에 조곤조곤 주고받는 대화를 느껴보라”고 권했다. 박성갑 작가의 저서로는 동화 '내 사랑 멋진별'을 비롯해 '생각나래 독서·토론·논술' 등이 있다. 출간 기념회는 25일 오후 4시30분 전주송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황동규 시인 한편 캔버스에 그려내듯

표혜영 작가에게 있어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는 함께 나이 드는 친구 같은 존재이자, 일상의 의미를 품답게 만드는 시다. 표 작가는 '내가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등의 시구에서 영감을 얻어, 일상의 심상을 그림으로 옮겨낸 '즐거운 편지전'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고 있다.

표혜영 '즐거운 편지' 전 27일까지

잔하고 평화로운 색과 터치를 보여준다. 마치 황 시인의 '즐거운 편지' 한 편을 그림으로 그려낸 듯 말이다. 또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 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는 문장을 인용해 표현한 작품에선 자연의 순환과 같이 인간의 세월 역시 기다림으로 점철됨을 담아내고 있다. 그는 그림과 함께 한 가을이 가고, 눈 내리는 겨울과 찬란한 봄에서 길어 올릴 작품들을 기다리며 즐거운 편지를 쓴다. /정해은 기자



작가는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양화 전공)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17 꿈-우리 인간은 꿈같은 길로 만들어져 있거든 등의 기획초대전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7번째 개인전이다.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정해은 기자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뮤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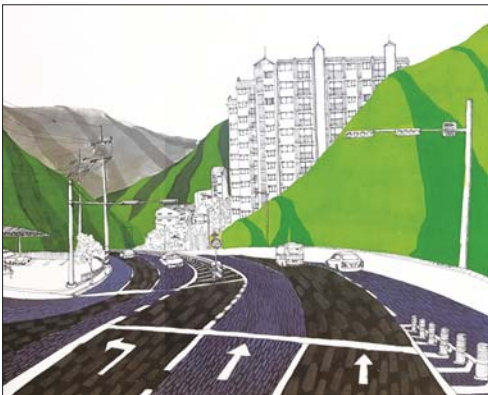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대표 음악 시리즈 '아트스 테이지 소리'가 25일 오후 7시 연

2인조 모던록 듀오 '노리플라이' 25일 소리문화전당서 무대

지홀에서 60번째 무대로 관객을 만난다. 이번 11월에는 제17회 '유재하 음악경연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정규1집(2009) 발매 후 뮤지션들에게 찬사를 받은 '노리플라이'가 출연한다. '노리플라이'는 권순관(보컬, 건반)과 정욱제(기타)로 구성된 2인조 모던록 듀오로 감성적인 멜로디와 포근한 가사, 폭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웰메이드 음악을 들려준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들에겐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정해은 기자

6년여 만에 발매한 정규3집 'Beautiful'에 대해 멤버 정욱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라며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아름다움을 가사와 멜로디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첼로와 3인조 조합의 소극장 버전으로 플랜드가 아닌 멤버들에게 집중하는 또 다른 매력의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아트스테이지소리는 1·2월 휴식기를 거쳐 2018년 3월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강선미 '휴(休)' (왼쪽), 최미현 '변해가는 것' (오른쪽).



한국화 채색 기법으로 표현해보는 '삶'

전주부채문화관, 강선미·최미현 작가 초대전... 부채 선면화·회화 20여점 선보여

(사)문화연구원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항미)은 강선미·최미현 작가를 초청, 한국화 채색 기법을 통한 일상의 풍경과 삶의 단면을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강선미·최미현 작가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30여회의 단체전 및 기획전시에 참여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강선미 작가는 휴(休)라는 주제로 빠른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휴식을, 최미현 작가는 흐르는 세월에서 변해가는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동양화나 한국화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은

먹을 사용해 작업하는 수묵화다. 동양화는 크게 재료나 기법을 기준으로 먹을 이용한 수묵화와 색을 위주로 표현하는 채색화로 나뉘는데,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한국화 채색 기법을 이용한 부채 선면화와 회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이들은 “일상에서 만나는 삶의 단면을 담은 작품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가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전시는 28일까지 전주부채문화관 지선실에서 관람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타고동락II'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서 무대

(사)일통고법보존회 전북지회는 24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제2회 정기공연 '타고동락II'를 선보인다. 타악으로 함께 즐기는 의미를 담은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날 무대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김창만 명고와 김규형 명인, 왕기석 명창이 함께하며 (사)일통고법보존회 전북지회(지회장 최만)와 부산지회(지회장 신문범)가 함께 교류공연을 갖는 뜻 깊은 자리이다. 이번 공연에는 소리북과 피아노의 만남 '적벽화전'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판소리, 가야금 산조, 장구합주 '다드리', 모듬북합주곡 '판타스틱' 등이 다채롭게 구성되어 펼쳐진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정해은 기자



김명준 개인전 '군산 감성전' 내년 1월까지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박물관 1층 열린갤러리에서 김명준 작가 개인전 '군산 감성전'을 내년 1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의 마지막 '시민 열린갤러리'의 주인공인 김명준 작가는 군산에서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작가로, 원도심의 낡은 담벼락 꾸미기 등을 통해 군산 곳곳의 잊혀져가는 옛 모습을 복원하고 과거와 현재 군산의 모습을 알리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산 감성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작품명 '군산의 감성'을 담은 김명준 작가 개인 작품 2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며 영상이나 사진의 도움보다 직접 두 발로 풍경을 마주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캔버스에 녹여낸 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평안을 주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병원은 119년 동안 생명을 지켜온 사랑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 갑니다. 환자경험 중심, 수준 높은 진료환경으로 행복을 키우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1897년, 예수병원 설립자 마티 잉골드 일기

5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대표전화_063.230.8114 고객지원센터_063.230.8181, 8196 응급의료센터_063.230.8282